

## 성경의 권위, 퀴어신학 그리고 기독교 상담

하재성\*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 상담자들로 하여금 성경의 권위의 중요성을 알게 함으로써 현대 자유신학의 정점에 있는 퀴어신학의 허구성을 분별하고, 인간 경험 위에 있는 성경의 권위를 기독교 상담의 핵심적인 기초로 삼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고 이성과 도덕을 중시하였던 경험론과 합리주의 철학은 성경을 떠난 자유주의 신학의 물꼬를 텃다. Augustine은 마니교를 비롯한 이성 중심적 철학의 유혹을 극복하고, 성경의 무오성과 그리스도 구속을 역설하였다. Calvin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였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으로서 그 자체가 인간에게 권위가 되어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Hume이나 Kant와 같은 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의 기적이나 전통적 신앙보다 도덕적 이상을 더욱 중시하여, 종교적 신앙을 도덕주의로 환원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퀴어신학은 모든 성경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런 강력한 도전 앞에서 기독교 상담자는 퀴어신학의 성경해석을 경계하고, 성경을 인간 경험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기는 오류를 멈추어야 한다. 오히려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치유를 얻도록 안내해야 한다.

**주제어:** 성경의 권위, 성경무오성, 퀴어신학, 전통적 성경 해석, 기독교 상담

• 논문 투고일: 2019년 9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10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11월 5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 이 논문은 2019년 고려신학대학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여는 글

기독교 상담에서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가 중요한 이유는 상담이란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함으로써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돌봄과 신학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상담자가 사람을 돌보는 이유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과정도, 그리고 한 사람의 회복된 모습을 그리며 추구하는 것도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와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애초에 Jay Adams는 권면적 상담을 통하여 성경에서 벗어난 심리분석학과 정신의학, 인본주의 심리학으로부터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키려고 의도하였다(Adams, 1980; Powlison, 2010). Adams 이후에도 기독교 상담에서 상담자가 성경의 무오성을 받아들이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데는 기독교 상담자들 사이에 이의가 없다(Collins, 1996; Crabb, 1999; Lambert, 2012; McMinn, 2011). 상담자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 상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 상담을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상담에서 성경의 중심성과 권위가 배제될 때 인본주의적 개별성과 주관성,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 상담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지난 20년에 걸쳐 서구의 목회상담과 신학자들에게서 선명하게 나타난 돌봄 중심의 상담의 현 주소이다. 예컨대 미국 아일리프 신학교의 상담학자 Larry K. Graham은 성경을 오래된 권위주의의 산물로 인식하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영적 필요를 더 앞세우다 보니 하나님의 이미지마저 친동성애적으로 바꾸고 말았다(Graham, 1997). 이어 뉴질랜드 출신의 성공회 사제이자 목회신학자인 Philip Culbertson은 ‘인류에 대한 관심사’와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교리적 해석’을 대치시키면서, 동성애에 대한

전통적 해석이 결국은 청소년 자살의 30%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Culbertson, 2000).

2014년에는 영국 기독교 상담협회(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lors)가 정신건강의 악화, 자해 및 자살 초래를 이유로 성경에 기초한 동성애 회복 상담을 멈추기로 결정하였다 (The Guardian, 2014). 이에 많은 정신의학자들과 상담가들은 이것이 마치 인간의 보편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처럼 환영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목회상담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의 전신이자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의 연합체인 ACPE에서 2019년 10월 컨퍼런스를 열면서, LGBTQIA(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questioning, intersex, and asexual)에 관한 할 수 있는 Cody J. Sanders를 주강사로 하여 성직자들과 다수의 기독교 상담가들을 동성애 친화적으로 훈련시켰다는 사실은, 오늘날 많은 치료 중심적 목회자와 기독교 상담가들이 성경의 전통과 권위의 기준을 떠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돌봄이 신격화’ 될 때, 결국 성경의 권위와 진리를 포기한 자유주의 신학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상담자들과 달리 현재 한국의 기독교 상담자들과 학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공식적인 신학적 논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가 2017년, “기독교 상담과 성”이라는 주제로 성경적 관점에서 학회 발표와 학회지 발간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논의를 하고 있는 주요 기독교 학회지를 찾기도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 상담자들은 자신의 모든 상담 행위와 철학이 기초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와 상담이 목표를 지정하는 성경적 성과 인간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특히 기독교 상담가들은 저명한 성경해석학자 Anthony Thiselt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본주의적 목회 돌봄이나 상담이 인간의 경험적이

“현재적(인) 상황에 지나치게 큰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성경 자료와 현재적 상황을 등가의 대칭물로” 보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Thiselton, 2015: 806-08). 그래야 더 이상 성경이 아닌 “개인의 경험 (Grenz, 2016)”에 권위를 두는 퀴어 운동, 즉 동성애 인권운동가들과 신학자들의 그릇된 우선순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을 상대화시키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성적 욕구는 절대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 상담가들의 유익을 위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에 관한 한 가장 신뢰하고 따를 만 한 대표적인 두 사람, 즉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에 의해 존중받는 4세기 Augustine과(Spear, 2009), “그 자신의 시대에서 절대적인 칭찬을 얻었고, 세계의 위대한 저서 중의 하나로” 기독교강요를 저술한 Calvin의 관점을 기술하려 한다 (Packer, 2009: 171). 아울러 자유주의의 극단에 선 퀴어신학이 어떻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해석학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인 철학자 Hume의 회의주의와 Kant의 도덕철학,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인 Schleiermacher의 경험중심주의를 논할 것이다. 이로써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기독교의 해석학적 지평을 버리고 현재에만 치중하는 퀴어신학의 위험성을 지적 하면서 기독교 상담자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성경의 권위와 그에 따른 기독교 상담적 돌봄, 즉 진리의 말씀으로 포화하게 하는 돌봄의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 II. 펴는 글

상담이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세밀하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 기독교 상담은 사랑과 공감의 소통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간다. 만일 상담자에게 성경적 기준이 선명하지 않으면 기독교 상담은 인본주의로 변질되어 돌봄과 위로, 현실의 '증상 완화'의 목표를 신격화시키고, 성경의 높은 진리를 타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옹호하는 퀴어신학은 성경과 해석의 전통, 가족 제도를 억압의 이데올로기라 여기며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독교 상담가에게 동성애는 인간이 반드시 회개해야 할 성적 무질서의 하나이다. 하나님의 권위 있고 무오한 말씀인 성경을 함부로 변경시키거나 왜곡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인간의 죄스러운 본질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 논쟁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름하는 오랜 논쟁이었을 뿐 아니라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횡행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Beale, 2008; Enns, 2005; Geisler & Roach, 2012; Hannah, 2009; Merrick & Garrett, 2016; Sparks, 2008; Woodbridge, 2011). 특히 해방신학에 이어 나타난 여성주의 신학, 그리고 1990년대에 등장하여 빠르게 퍼지는 퀴어신학 등에 의해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은 심각하게 위협당해 왔고, 지금도 성경의 무오성의 교리는 교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무오성이란 곧 기독교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교리적 전제로서,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며, 무오성은 그런 '기독교 신앙의 정수'로 간주된다(Merrick & Garrett, 2016). 무오성을 믿는 것은 곧 성경 각권들이 여러 인간 저자들에게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하였으나, 그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다.

하지만 1970년대 말에 복음주의 내의 Jack Rogers나 Donald McKim 등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교회 전통에서 성경 메시지는 권위가 있지만 말씀의 형식은 별개로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Hannah, 2008). 이들은 성경무오의 개념이 개신교 스콜라 철학의 산물이라 믿고, Augustine, Luther, Calvin 등의 신학을 무오성 교리와 무관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성경무오는 “중심적 교회의 전통이다(Hannah, 2008: 13).”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무오성에 이의를 제기한 Jack Rogers가 동성애자 커플을 예수님이 축복하신다는 비성경적 신학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Rogers, 2015). 성경무오성을 떠난 신학이 급진적 자유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동성애를 인권으로 여기며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퀴어신학의 뿌리는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과 교회 전통에서 떠난 자유주의 신학이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할 때 기독교 상담은 성경이 아닌 인간의 고난을 절대시하는 변이의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성경의 권위가 배제될 때 인간의 성적 취향이 절대시되고, 기독교 상담자의 정체성은 성경이 아닌 돌봄의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성에 대한 인식은 세속화되고 신학적 세계관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안경승, 2017).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우선 상담자의 부르심에 대한 Adams 진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떤 기독교 사역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부르신 곳에서 유익을 끼치는 상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모든 상담에 있어서 중심이 되신다(Adams, 1986: 268-69).”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상담은 기독교적일 수 없는 이유는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1. 성경의 권위: Augustine의 성경 유일성과 Calvin의 내적 증거

성경무오성이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적, 구원사적으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성령의 영감이란 말 그대로 ‘성령의 실제적인 활동 (the actual working of the Holy Spirit)’ 이라고 할 수 있다 (Weber, 1981).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사명을 “성령의 사역” (diakonia tou pneumatou, 고후 3:6, 8)이라 말하거나 선지자들의 말을 “영감 된 말씀”이라(고린도전서 14장) 말하면서(Weber, 1981),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들 곧 기록된 성경 역시 영감된 것이라 선언 한다(딤후 3:16).

초대 교회에서 영감의 교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론은 없었지만 성경무오에 대한 교회 내의 반박도 없었다 (Hannah, 2009). 하지만 주후 4세기에 이르러 Augustine 시대에는 성경의 문자적 영감이나 전통적 성경 해석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후 4세기의 과격한 기독교 진보주의자들이자 이성의 신봉자들인 마니 교도들은 당시 ‘아프리카 교회의 척추와 같았던 성경’의 권위를(Brown, 20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새롭고 영적인” 성경 해석의 흐름으로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며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였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전혀 ‘영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역겹다’고 표현하였고(Brown, 2000), 그리스도에게는 구약 선지자들의 증언이 전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들의 지적인 논의는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으며, 명민했던 청년 Augustine조차도 구약의 하나님과 전통적 기독교를 떠나 ‘영적이고 고상한’ 마니교에 입교하게 하였다. “그들의 선교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말을 잘하고 세련된 사람들이었다(Brown, 2000: 32).”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의 매너가 세련되었고, 이성을 강조하였고, ‘뚝뚝하며

집요하다' 는 면에서(Brown, 2000)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전통적 성경에 대한 그들의 파괴 작업은 매우 지성적이고 집요하였다. 그들은 '믿으라고 말하는 권위주의적인 명령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며,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인 이성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모든 오류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Brown, 2000: 32).

Augustine은 마니교도들을 추종하면서 율사로서의 삶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교회를 버리고 이성을 선택하였다. 첫 9년간은 그들의 추종자로만 남아 있었고, 철저하게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선택신 하나님에게는 악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을 따랐다. 하지만 그는 개종과 더불어 마니교도들의 성경관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자신만의 성경관을 세웠다. Augustine은 성령께서 성경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구약을 비롯한 모든 성경이야말로 “참으로 유일하게 신뢰할만한 역사-책”이라고 말한다” (Brown, 2000: 321).

Augustine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펠라기우스 주의 역시 “인간의 원죄를 거부하고,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열어 놓고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특별한 은혜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Braaten & Jenson, 1984: 32).” 펠라기우스 주의의 특징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이성을 성경의 권위 위에 놓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과도한 낙관성을 부여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신플라톤 사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영혼이 신비로운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원천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열고자 열망하

는 것이다(Braaten & Jenson, 1984: 32).” 하지만 성경 안에서 Augustine 이 새롭게 발견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반대였다. 즉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의 사랑으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찾아오셨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했던 일이며,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면서 소통하는 것이었다(Braaten & Jenson, 1984: 32).”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sine errore)’ 라고 그는 확신하였다(Merrick & Garrett, 2016).

종교개혁자 Calvin과 그의 후예들은 Luther가 이신칭의에 관심을 가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식적 원리, 곧 성경의 권위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다” (Hesselink, 2003: 146).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의 충족성이었다. Calvin의 후예들은 “축자영감설 (Charles Hodge; B. B. Warfield)이나 완전영감설(Albertus Pieters)”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Calvin 개혁주의에 있어서 성경에 관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 영감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충족성과 신뢰성”이었다(Hesselink, 2003: 146-47). 역사적,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inerrancy’ 나, 구원 메시지 전달에는 오류가 없다는 ‘infallibility’가 현대 성경무오성의 논의의 대상이지만, Calvin은 오히려 “성경의 진리와 권위에 대한 성령의 내적 증거 교리를 역설하고 있다(Hesselink, 2003: 148).”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설득당하기 전에는 (I. 7. 4.)” 성경이 완전한 권위를 가질 수 없으며, 오직 “인간의 이성, 판단 혹은 추측보다 더 높은 곳, 곧 성령의 비밀스러운 증거에서(I. 7. 4.)” 비로소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Hesselink, 2003: 149).

그러므로 Calvin과 그 후예들은 성경의 권위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5조, Hesselink, 2003: 149). 웨스트민스터 신

양고백서 역시 성경의 권위에 대한 궁극적인 결론을 성령님께 귀착시킨다: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들의 완전한 신념과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부터 비롯된다 (I. 5, Hesselink, 2003: 149).”

아울러 Calvin은 말씀과 성령의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한다: “성령 없는 말씀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며 죽은 정통주의를 생산한다. [한편] 말씀으로부터 성령을 유리시키면 터무니없는 새로운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에 부합되지 않는 일방적 경험주의에 빠지게 된다” (Hesselink, 2003: 151). Calvin에게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원리는 “언약 (Testament) 개념을 해석학적 열쇠로 삼는” 것이며 (Hesselink, 2003: 153). 그 언약의 본질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언약과 성취의 관점에서 구원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 해석은 근본적으로 비성경적이며 그릇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Calvin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서 “인간에게 권위”를 가지며,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 우리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한다(Berkhof, 2008: 41-42).

## 2. 회의주의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

성경무오성과 권위는 교회 안팎에서 많은 도전을 겪어왔다. 특히 경험주의 철학자 David Hume의 회의적 태도는 이후 성경의 권위를 논하는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Hume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적에 관하여(Of Miracles)”에서 기독교가 성경과 전통을 중시하지만 그것은 미신적이며 교만한 독선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경험’ 이야말로 “오류가 없지 않은 (not infallible) 우리의 안내자”이므로 오직 “성실한 관

찰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참된 지식의 원천이라고 말한다(Hume, 1998: 108). 이성적 사고는 오직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으로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회의와 의심은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이지만, 거기에 “만일 종교적 정신이 기적과 같은 현상을 사랑하게 되면, 착각과 공허감과 강력한 자기중심적 유혹 곧 뻔뻔스럽고 부적절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미신적 믿음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Hume, 1998: 113).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대한 Hume의 비판은 매우 강하고 조소적이다. 그는 “과열된 상상력”이 회심을 낳고, 회심이 착각을 낳는다고 말하면서 “기적은 결코 입증될 수 없고 종교체계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Hume, 1998: 122). 이 같은 주장이야말로 “자연의 부패, 오염, 그리고 해체”를 초래하는 것이다(Hume, 1998: 123). 결국 이런 종교의 예언들을 믿는 믿음은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경험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성의 기초가 없이 세상을 속이는 것들이다.

하지만 Hume의 강력한 회의주의는 결국 인간 인식의 능력까지도 의심하기에 이르러,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아무런 대상조차 남기지 않았을 때, 독일의 철학자 Immanuel Kant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신, 자유, 영혼의 불멸 같은 형이상학적 주제’를 입증하려 하였다(김용주, 2018). 물론 Kant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성의 사유 능력을 통해 전능한 신의 존재를 ‘요청(Postulat)’ 하였다.

Kant의 이성주의 혹은 도덕주의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나 성경에 의한 성경의 해석을 거부한다. 그에게는 종교나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덕이었다. “도덕이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도덕을 위해 존재 한다”는 것이 그의 실천이성의 결론이며(김용주, 2018: 53), 종교가 아닌 도덕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다. 그러므로 Hume을 이어 Kant에게서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들

을 인식하고 행하는” 도덕적 실천으로 환원되었고(김용주, 2018: 53), “모든 참된 종교의 첫 번째 토대는 순전히 도덕적 법칙의 수여”라고 말했다(김용주, 2018: 56).

Kant의 결론은 Hume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성경에 나타나는 종교적 계시가 더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며,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생득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알고 실행할 수 있으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동의 공리가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이 되도록 행동”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기 때문이다(김용주, 2018: 55).

Kant는 예수를 통하여 ‘축소된 하나님의 나라’ 곧 도덕 국가를 지향하였다(Kant, 1993).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지도 않았고, 그저 도덕 사회를 성취해 가는 한 사람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켜세웠을 뿐이었다. 종교를 통해 도덕을 세우려 했고, 인간의 도덕 능력을 전통적 기독교의 기본 진리보다 더욱 신뢰하였다.

철학자 Jurgen Habermas의 지적과 같이, Hume이나 Kant, 그리고 Hegel과 같은 철학자들의 태도는, 성경의 고유한 영적 권위를 해체하고, “이성을 교회 신앙의 해석학을 위한 척도로 만들고... 이성 신앙의 본래 목적인 인간의 도덕적 개선을 모든 성경 해석의 가장 높은 원리로” 만들고 말았다(김용주, 2018: 60-61). 이성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때 결국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육신, 수난과 부활은 부수적 요소들로 밀려 난다.

이 같은 계몽주의 철학에 뿌리를 둔 자유주의적 신학은, 성경무오성과 권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제거해버렸다. 그 대신 오로지 인간의 이성과 정의감에 의한 윤리의 실천만을 요구함으로써 은혜 없는 자가구원이나 존재의 변화 없는 인본주의적 도덕만 남게 하였다. 예컨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기 위

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과 공의를 저버리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이다. 성경의 권위를 버린 결과는 타락과 구원의 교리를 잃고, 하나님 존재의 내적 원리를 부정하며, 현실적 경험의 편의만을 좇아 공의 없는 사랑, 회개 없는 신앙, 경건 없는 관용만 추구한다.

자유주의 신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Schleiermacher는 종교에 대한 Hegel의 이성 중심적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종교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직관(Anschauung)과 감정(Gefuhl)이라고 주장”한다(김용주, 2018). 그의 구속 개념은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무관하며 성경의 계시와 전혀 상관없다. 그는 인간이 타고나는 “종교적 소질”을 출발점으로 삼아 종교 및 기독교의 필요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인식 범위 밖에서 주어진 “성경 계시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종교성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김용주, 2018).

Schleiermacher는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의 틀을” 부인하고, 해석의 목적을 ‘이해(Verstehen)’로 설정함으로써(김용주, 2018: 81), 성경이 계시하는 지식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에 대한 지식”을 간과한다(김용주, 2018: 93). 그에게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그저 신적 본성을 입을 가능성 있는 한 인간일 뿐이었다. 다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상승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순종한 모범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믿음을 개별화, 혹은 주관화한다.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Schleiermacher에게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에서 온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가 아닌 개개인의 신 의식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죄가 인간의 완전성에 근원적인 손상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낙관론을 견지한다. 신 의식만 강화하면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완전무죄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완전성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구속받는다고 한다.

결국 Schleiermacher는 후대의 신학자들인 Wolfhart Pannenberg와 Karl Barth부터 주관주의에 빠진 신학, 혹은 “종교개혁의 계승자가 아니라 계몽주의의 완성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김용주, 2018: 108). 그가 추구한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윤리적 문화국가였다. 아울러 ‘구속종교’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본래 신이 아닌 인간 예수를 의지할 때, 죄의식과 은혜의식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존재로 믿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 대한 신학자들의 평가는 정당하며, 자유주의적인 해석자로서 전통적 교리와 성경해석을 떠난 신학의 선구자로서의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위에서 살폈듯이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주의의 발생과 함께, 계시보다 이성이나 경험을 앞세운 철학자 및 신학자들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가장 중시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의 가치이며, 거기에 없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의 변치 않는, 정확무오한 진리나 자원”이다(Hodgson, 2010). 이들에게 성경무오성이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의 적절성이다. 즉 성경이 현대 사회에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자유를 이상으로 하고, 사람의 관점에 성경을 맞추려다 보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유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사건을 제외시키고, 인류 역사에 도덕적 진보를 위해 공헌했다고 믿는 산상수훈과 같

은 본문들만 권위가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 윤리적 실천이나 개인의 종교적 체험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선별된 도덕적 구문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한다. 결국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필요가 우선되는 자유주의적 성경해석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그의 구속을 왜곡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들은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원죄 교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 등 낙관론적 관점에서만 인간을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죄인이 아닌 사회적 약자라는 퀴어신학의 프레임에까지 이르게 된다.

### 3. 퀴어신학, 극단의 자유주의

퀴어신학이란 신학자이자 작가인 Robert Goss에 의해 명명된 신학이다(Goss, 1994). Michel Foucault, Gayle Rubin, Judith Butler 등의 영향을 받은 퀴어신학은 성경을 기독교적 전통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동성애라는 특별한 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해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퀴어신학자들은 성경을 비롯한 인류 역사에 젠더 불일친 게이 레즈비언의 욕망이 언제나 존재했다고 가정하고, 또 다른 종류의 성경해석을 통해 이들의 성적 취향을 허용해주고, 동성애 욕망과 행위에 대해 더 이상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 신학을 추구한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한 전통적인 가정 제도나 사회문화적 규범들, 심지어 교회와 성경의 명령을 억압의 이데올로기로 치부하여 거부하고, LGBTQI라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기독교 안에 포함시키려 한다. 더 큰 심각성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보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육신, 수난, 부활의 의미까지 성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왜곡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인 Hugh

Montefiore주교는 1967년의 한 컨퍼런스에서 “모든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외부인들’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과 친밀하셨음을 볼 수 있는데... 예수가 본질상 동성애자였다..는 것이 그의 독신상태에 대한 진정한 설명이다”라고 말한다(Montefiore, 1968).

에딘버러 대학의 상황신학 교수인 Marcella Althaus-Reid는 『퀴어 하나님 (The Queer God, 2003)』이라는 저서에서 성경을 성과 퀴어인들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게이 클럽의 거룩성, 사회 변두리의 사람들을 위한 신학을 강조한다. 그녀는 남미 해방신학의 기초 위에서 자신의 신학을 펼치면서, 기독교 신학이 이성의 성적 관계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를 주된 권력으로 삼아 지배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란 밀폐공간에서 나와서 신학적 퀴어링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라질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lthaus-Reid교수는 “모든 신학은 성적 행위이며, 하나님이 여자와 성관계를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말한다(Boehler, 2011). 그녀에 따르면 퀴어신학은 해방신학과 여성주의 신학보다 훨씬 과격성을 가진 신학으로서, 퀴어의 하나님은 과정과 모호성과 다양한 정체성 속에서 나타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전근대적 이미지 즉 창조주, 구속자, 통치자로서 완전하신 분이 아니며 신학 역시 더 이상 언제나 변화에 열려 있는 불안정성이 본질이다.

이외에도 게이 신학자 Robert E. Shore-Goss는 ‘동성애’ 혹은 ‘이성애’라는 말이 1800년대 와서야 생겼고, 퀴어란 의미가 이상하고 생소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행하신 모든 모습들은 곧 예수님이 퀴어였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한다(Massey, 2019). 퀴어신학자이자 QSpirit.net의 창시자인 Kittredge Cherry는 “또 다른 방식의 고대문서 읽기”를 통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된 고자(마 19:12)이자 당시의 성소수자를 돌본 게이라고 말함으로써 주변인들이 성경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Massey, 2019). 아

올러 레위기 18:22은 오늘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구문들이며, 고전 6:19등을 볼 때, 고대에도 다양한 성적 정체성들을 성경이 인식했다고 덧붙인다.

이처럼 퀴어신학자들은 성경을 그 시대에 고착된 고대 문서로 보면서, 현실의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다보니, 성경을 끊임없이 변경하거나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계시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빼거나 덧붙이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그것은 성육신과 수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핵심적인 교리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요1:14).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분의 신성과 ‘과거의 신분’은 중단되지 않았으며(Berkhof, 2008)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가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취하신 행위이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것이었다(빌2:7). 이것은 인류 역사나 전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육신의 교리, 즉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요14:9) 사랑과 구원을(요3:16)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하지만 퀴어신학은 성육신을 완성되지 않은 정체성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Althaus-Reid에 따르면 옷장 속에 갇히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나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사람이 될거야”라는 “미완성의 하나님 (unfinished God)”을 보여준 것이었다(Boehler, 2011). 소의 배설물과 벼룩 사이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완성된 인격일 수 없으며, 것처럼 유동성 있고 언제나 변화 가능한 하나님의 정체성은 곧 성적 다양성과 젠더 이슈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고 말한다. 이에 덧붙여 영국의 퀴어신학자 Elizabeth

Stuart는 아기 예수의 몸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지닌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는 [모든 것이] 퀴어에 대한 것”이라 주장한다(Stuart, 2003). 퀴어신학자들도 펠라기우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동성애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없으며, 구원받은 삶이란 곧 동성애를 포용하며 조장하는 삶이라고 주장한다.

#### 4. 성경 권위의 회복과 기독교 상담자

결국 성경을 떠난 퀴어신학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들을 위협하며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려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와 성적 범죄들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동성애는 죄인인 인간의 성품을 오염시킨 성적 무질서의 하나이며, 로마서 1장에서 보듯 우상숭배를 비롯한 많은 죄들의 하나이며, 반드시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버려야만 할 죄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믿는 기독교 상담자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따라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퀴어신학의 자유주의적 성경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한다.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황규명 교수의 지적은 이런 관점에서 적절하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죄가 만들어 낸 첫 번째 요소는 반역이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데, 자율성, 자기 충족성, 그리고 자기 초점이라는 거짓말을 따른 타고난 성향이다...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황규명, 2011: 51).

종교개혁자들의 성경해석원리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상담자들은 성경

이 성경을 해석하며, 성령께서 내적으로 증거 하시는 권위의 신실성을 믿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을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선 창세기 19:1-8의 말씀을 두고 Derrick Bailey는 일찌감치 소돔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무례함으로 보았다(Bailey, 1955). 하지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창19:8)고 응답했을 때 ‘남자를 알지 않는’ 이라고 해석하는 히브리어의 ‘야다’가 등장한다. 결국 소돔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동성애적인 성행위였음을 그의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다(Grentz, 2016).

에스겔 16:49에서는 소돔의 죄악을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퀴어신학자들은 여전히 핵심을 비켜가려 한다. 하지만 곧장 이어서 나오는 “거만하여 가증한 일들”(겔16:50)은 ‘토에바(תּוֹעֵבָה)’ 곧 동성애 행위들을 묘사하는 용도와 일치한다(Grentz, 2016). 토에바는 레위기 18:22에서 남자와 남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우선 등장한다. 하지만 당시에 풍요를 비는 신당의 제사들에서 남자들끼리의 성행위가 풍요 제사의 일부였다는 기록이나 학설은 존재하지 않는다(Grentz, 2016). 혹은 이들이 레위기 본문을 윤리 규정이 아닌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때, 출산(12:2-5), 정액 배출(15:16-18) 월경(15:19-30) 등은 “목욕과 희생제물을 통해 정결해질 수 있었다(Grentz, 2016: 82).” 그러나 ‘토에바’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 존재가 가진 참된 정체성’에 어긋나는 도덕적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었다(Grentz, 2016: 82).

성경 해석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이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퀴어신학은 진정한 기독교 신학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퀴어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치부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한 전

통적 성경해석을 배격하는 일이다. Luther와 Calvin이 성경이 이해와 사용을 위해 당시 “교회의 교도권(*magisterium*)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부들의 전통을 깊이 존중했다(Thiselton, 2015).” 전통적인 해석은 곧 “굳은 틀”과 같은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 신앙과 이해의 굳은 틀을 벗어난 이성적 탐구의 한계”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Thiselton, 2015).

Thiselton교수는 “세상이 성경을 흡수하는 것보다 성경 텍스트가 세상을 흡수해야 한다는 린드백의 주장”을 강조한다(Thiselton, 2015). 그는 또한 성경 말씀을 현재 경험의 가치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 Pannenberg의 신학이 말해 주듯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는 그 자체로 역사와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예비적으로 나타난 약속된 미래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 나아가는 과거 전통의 역사의 관점” 속에서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Thiselton, 2015: 808).

취어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의 가장 큰 맹점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현실의 경험과 개인적 고난을 전통적 해석과 부활의 통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주관적 고통들을 제거하고자, 기독교 신앙의 현재를 지탱하고 있는 역사적, 전통적 성경의 권위와 해석,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래의 소망까지 제거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작은 통증완화를 위하여 성경을 통한 기독교적 과거와 미래를 제거해버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현재에만 제한시키는 행위이다.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동성애적 성향의 내담자 경험은 개인적 갈등과 고통에 대한 공감의 주제일 뿐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진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이드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현재를 과거, 현재, 미래의 보다 넓은 틀 속에서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Thiselton, 2015: 811).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 수난, 부활의 사건들이 고난과 모순으로 가득한 현재를 살아가고 경험하는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 경험을 바꾸는 것이지 현재의 경험이 과거의 사건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목회상담을 이끌어 온 Anton Boisen 목사의 “살아있는 인간 문서(the living human document)”가 갖는 위험성은 개별적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험과 성경 본문은 결코 동등하게 해석될 수 없다. 만일 기독교 상담자가 경험의 비중을 극대화하면서, “실제로 일어나고 경험되는 것을 실제적 존재(actual entity)라” 부르고,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는 바로 실제 경험들의 집합”이라고 강조하게 될 때, 돌봄의 “경험에 [절대적] 가치를” 두었던 Larry Graham의 결론에 이르고 말 것이다: “나는 고대의 성경 본문, 교회의 선별적인 역사적 실행, 추상적인 윤리적, 신학적 입장들...만을 가지고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삶에 대한 기독교적 규범을 정의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Graham, 1997: 3).”

상담의 구조상 현재적 경험을 듣고 해석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본질적 임무이지만, “현재의 개인적 경험이라는 좁은 시야를 떠나서... 성경 안에 펼쳐져 있는 넓은 전망 속으로 나아갈 때]... 여기서 우리는 좋은 때나 낫은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시험받아왔던 한 공동체의 긴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Dodd, 1928: 298-99; Thiselton, 2015: 816). 이로써 상담자는 고난당하는 내담자의 진정한 영적 위치와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고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진정으로”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 인간과 동일시”하신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말하여 알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적 상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희, 2010: 230-232).

기독교 상담자들은 동성애에 이끌리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되어 주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가지는 외로움과 죄책감”을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곽정임, 전요섭, 2017: 98). 참된 회개는 참된 돌봄에서 오며, 참된 돌봄은 성경을 통한 성령의 조명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자는 이들이 잘못된 신념과 주관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진리의 말씀에 빠뜨리라”고 말하는 Backus의 주장대로, 성령으로 감동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고통과 갈등, 혹은 동성을 향한 성욕으로 가득한 삶을 포화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무거운 죄책감을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을 채움으로 음란물과 싸워 이기도록 도와야 한다. 성경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실 것이다(Comiskey, 2007).

아울러 기독교 상담자들은 Calvin이 성경이 권위를 성령님의 내적 증거에 의존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론에 앞서 상담자이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변화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정인숙, 2017: 254). 상담자 자신과 내담자가 성경의 권위와 영감성을 인정하고, 복음의 원칙을 지키며, 성령의 내적 사역을 의지할 때, 고통당하는 한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성경무오성에 대한 상담자의 굳건한 신뢰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소망이(Lutzer, 2011) 오히려 이 시대에

동성애로 고투하고 있는 많은 이들조차도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의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 III. 닫는 글

기독교 상담에서 중요한 기초의 하나는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이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상담의 목적과 과정과 추구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의 많은 기독교 상담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동성애자들을 돌본다는 취지로 성경의 권위와 진리를 포기한 자유주의적 쿼어신학을 지지하거나 추종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과 기독교적 전통을 이 시대에 부적절한 규범으로 여기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그러므로 성경말씀에 대한 상담자의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신학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기독교 상담자라면 주후 4세기에 Augustine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으며 성경이야말로 성령께서 감동하신 유일하고 신뢰할만한 책임을 고백하였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alvin과 그 후예들은 성경의 충족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역설하였음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Calvin의 주장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며, 성령의 증거로부터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말씀과 성령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언약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해석의 바른 원리임을 그는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은 교회 안팎의 도전에 시달리면서, 특히 계몽주의 이후에 등장하는 Hume을 비롯한 자유주의 철학자들과 이어 나타나는 Schleiermacher를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이성을 절대화하면서 성경의 기적을 믿는 것을

비판하였다. Kant 역시 신앙과 영생과 하나님의 필요성은 이야기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도덕을 위해 요청되는 것들로 가정함으로써 초자연적 계시를 간과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 내에서 등장한 자유주의 신학 역시 종교적 계시나 성경의 권위보다 개인의 경험, 이성, 동시대 사람들에 대한 설득을 더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 그들에게는 변함없는 진리나 정확무오한 성경은 더 이상 권위가 될 수 없었으며,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보다 산상수훈과 같은 도덕적 가르침만 가치 있는 교훈이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 오늘날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들을 죄인이 아닌 사회적 약자라고 인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성경을 변형시키려는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퀴어신학은 성경을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변형하여 해석한다. 더 이상 죄와 회개를 말하지 않고, 전통적인 남녀간의 결합에 의한 결혼을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로 치부한다. 이들은 예수를 동성애자로, 성육신을 양성애자의 탄생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예수를 퀴어로 해석하면서 예수를 통한 모든 구속사역을 퀴어 관점으로 채색해버린다.

그러나 동성애는 신학적 합리화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함을 통해 변화받아야 할 성적 무질서의 하나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자기중심적인 존재임을 성경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이성이 아닌 계시를 의지하면서, 현실의 고난보다 더 큰 성경 텍스트와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이란 절대화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약속된 미래 사이의 기나 긴 신앙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의한 인간 현재의 변화를 추구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 상담자는 결국 성령과 말씀에 의해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참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말씀에 더욱 천착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의 모든 존재와 문제를 포화시킴으로써 강력한 동성애적 욕구와 음란물과의 싸움마저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권위의 불신은 필연적으로 인본주의적 돌봄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성경적 권위의 신뢰는 영혼의 치유와 구원을 일으킬 것이다.

【 참고문헌 】

- 곽정임, 전요섭. (2017). 기독교인의 성 중독 회복을 위한 상담방안. *복음과 상담*, 25(2), 83-113.
- 김영희 (2010). 고난 속 고통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고통을 통한 인생의 의미. *복음과 상담*, 14, 218-239.
- 김용주 (2018).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좋은씨앗.
- 안경승 (2017). 성경적인 성정체성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5(2), 45-81.
- 정인숙 (2017). 관계중독 회복을 위한 성경적 상담의 삼중구조관계. *복음과 상담*, 25(2), 241-273.
- 황규명 (2011). 학교폭력에 나타나는 마음의 문제: 성경적 상담의 관점. *복음과 상담*, 16(2), 37-63.
- Adams, J. (1980). *What About Nouthetic Counseling?*. Philli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 Adams, J. (1986). *Competent to Counsel: Introduction to Nouthetic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 Bailey, D. S. (1955).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London: Longmans, Green & Co.
- Beale, G. (2008). *The Erosion of Inerrancy in Evangelicalism: Responding to New Challenges to Biblical Authority*. Wheaton, IL: Crossway.
- Berkhof, L. (2008) *별코프 조직신학 개론* (박희석 역,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경기도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원전 1933 출판).
- Braaten, C. E. & Jenson. R. W. (Eds.). (1984). *Christian Dogmatic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Brown, P. (2000) *Augustine of Hippo: A Biography*.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lins, G. (1996). *크리스찬 심리학* (문희경 역, *The Rebuilding of Psychology: An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서울: 요단출판사. (원전 1977 출판).
- Comiskey, A. (2007). *동성애, 온전한 변화를 위한 시작* (민지현 역, *Pursuing Sexual Wholeness*). 서울: 웰스프링. (원전 1989 출판).

- Crabb, L. (1999). *성경적 상담학* (정정숙 역,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서울: 총신대 출판사. (원전 1975 출판).
- Culbertson, P. (2000). *Caring for God's People: Counseling and Christian Wholeness*.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 Dodd, C. H. (1928). *The Authority of the Bible*. London: Nisbet.
- Enns, P. (2005). *Inspiration and Incarnation: Evangelicals and the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Geisler, N. & Roach, W. (2012). *Defending Inerrancy: Affirming the Accuracy of Scripture for a New Generation*. Grand Rapids, MI: Baker.
- Goss, R. (1994). *Jesus Acted Up: A Gay and Lesbian Manifesto*. San Francisco: Harper.
- Graham, L. (1997) *Discovering Images of God: Discovering Images of God: Narratives among Care of Lesbians and Gay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Grenz, S. J.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김대중 역, *Welcoming but Not Affirming: An Evangelical Response to Homosexuality*). 서울: 새물결플러스. (원전 1998 출판)
- Hannah, J. (Ed.). (2009). *성경무오와 교회* (정규철 역, *Inerrancy and the Church*). 서울: 그리심 (원전 1984 출판).
- Hume, D. (1998). Of Miracles. In Richard H. Popkin. (Ed.), *Dialogues Concerning Natural Religion*. Indianapolis: Hachett.
- Hesselink, J. (2003). *개혁주의 전통* (최덕성 역,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원전 1988 출판).
- Kant, I. (1993).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Lewis W. Beck. (tran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Lambert, H. (2012)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Wheaton, IL: Crossway Books.
- Lutzer, E. W. (2011). 동성애에 대해 교회가 입을 열다 (홍종락 역, *The Truth about Same-Sex Marriage*). 서울: 두란노. (원전 2004 출판).
- McMinn, M. (2011). *죄와 은혜의 기독교 상담학*. (전요섭, 박성은 역, *Sin and Grace in Christian Counseling: An Integrative Paradigm*). 서울:

- CLC. (원전 2008 출판).
- Merrick, J., & Garrett, S. M. (Eds.). (2016). *성경무오성 논쟁* (방정열 역,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서울: 새물결플러스. (원전 2013 출판).
- Montefiore, H. W. (1968). Jesus, the Revelation of God. In Norman Pittenger (ed.) *Christ for Us Today*. London: SCM Press.
- Packer, J. I. (2009). “Calvin과 성경무오.” In Hannah, J. (Ed.). (2009). *성경무오와 교회* (정규철 역, *Inerrancy and the Church*). 서울: 그리스심 (원전 1984 출판).
- Powlison, D. (2010).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History and Context*.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 Rogers, J. B. (2015). 예수, 성경, 동성애: 신화를 타파하라 교회를 치유하라 (조경희 역, *Jesus, the Bible, and Homosexuality: Explode the Myths, Heal the Church*).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원전 2009 출판).
- Sparks, K. (2008). *God’s Word in Human Words: An Evangelical Appropriation of Critical Biblical Scholarship*.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Spear, W. (2009). “Augustine의 성경불오 교리.” In Hannah, J. (Ed.). (2009). *성경무오와 교회* (정규철 역, *Inerrancy and the Church*). 서울: 그리스심 (원전 1984 출판).
- Stuart, E. (2003). *Gay and Lesbian Theologies: Repetitions with Critical Difference*. New York, NY.: Routledge.
- Thiselton, A. (2015). 해석의 새로운 지평 (최승락 역, *New Horizons in Hermeneutics*). 서울: SFC. (원전 1997 출판).
- Weber, O. (1981). *Foundations of Dogmatics*. vol. 1. Grand Rapids, MI: Eerdmans.
- Woodbridge, J. (2011). Evangelical Self-Identity and the Doctrine of Biblical Inerrancy. In A. Kostenberger & R. Yarbrough. (Ed.). *Understanding the Times: New Testament Studies in the 21<sup>st</sup> Century*. Wheaton, IL: Crossway.
- Boehler, G. (2011). TheQueerGod: The God wemust free from the mirror of our own ideologies. 2019년 9월 20일 검색.  
<https://ofld.mcccchurch.org/download/Garner-Institute/Boehler%20-%20The%20Queer%20God%20-%20English.pdf>.

Hodgson, Peter C. Liberal Theology. September 14. 2010. 2019년 9월 20일 검색.

<https://doi.org/10.1177/0014524610377044>.

Massey, W. (2019). How queer theology is changing the place for LGBTQ Christians in the church. 2019년 9월 20일 검색.

[https://www.fredericknewspost.com/news/lifestyle/religion/how-queer-theology-is-changing-the-place-for-lgbtq-christians/article\\_8268f13c-8114-5ecf-be43-a038fb5a1d51.html](https://www.fredericknewspost.com/news/lifestyle/religion/how-queer-theology-is-changing-the-place-for-lgbtq-christians/article_8268f13c-8114-5ecf-be43-a038fb5a1d51.html).

Christian counsellors ban therapy aimed at ‘converting’ gay patients. 2019년 10월 30일 검색.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4/jan/13/christian-therapists-stop-conversion-therapy-turn-gay-patients-straight>. 2019년 10월 30일 검색.

<https://www.acpe.edu/ACPE/Events/CoPs/KanugaFall19.aspx?WebsiteKey=4226fe39-34cc-48f4-a057-3885f8cac917>. 2019년 10월 30일 검색.

【 Abstract 】

## The Authority of the Bible, Queer Theology and Christian Counseling

**Ha, Jaesung**

Korea Theological Seminary (Ko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or Christian counselor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authority of the Bible as an essential foundation for Christian counseling. Augustine fought the Pelagian heresy of his day by basing his trust on the inerrancy of the Bible. Calvin emphasized the atonement of the Christ revealed in the Spirit-inspired Scripture that becomes an object of our faith with its divine authority. However, liberal theology inherited the Pelagian priority of human reason over inspiration with the advent of the Renaissance and the preference of human rationality to Christian authority of the Scripture. Immanuel Kant valued human reason and morality higher than the Christian doctrines such as incarnation, crucifixion or resurrection and reduced the faith-tradition into religious moralism. Liberal theology that follows after Kant and Schleiermacher results in forsaking traditional faith values and, instead, taking only adaptable moral instructions for the day from the Bible. Queer theology, in the same vein, takes the liberal stance of the Bible by radically modifying scriptural texts only for the wellbeing of LGBTQIA people. Aware of the dangers of liberal theology, the Christian counselor must stand on the faith of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he Christ's atonement that can even save the homosexual.

**Key words:** authority of the Bible, inerrancy, queer theology,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Christian counseling